

### 1. 개요

□ **일 시** : 2020. 7. 16(목) 14:00 ~ 17:00

□ **장 소** : S타워 21층 세미나실 (농특위 입주 빌딩)

#### □ **안 건**

- (안건1) 전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결과(안) 보고
- (안건2) 후속 현장 간담회 추진계획 논의(토론회 개최(안) 검토)
- (안건3) 유럽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사례 조사결과 보고

#### □ **참석자 [17명]**

- (분과위원 6) 정학철 소분과장, 김현아 위원, 송기호 위원, 윤금순 위원, 정명생 위원, 이무진 위원
- (전문위원 4) 강선희 양과협회 정책위원장, 이태문 마늘협회 정책위원장, 최철원 전남 정책보좌관,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팀장
- (정책연구용역팀 5) 이정환 이사장, 김명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 송원규 녀름 부소장, 이수미 녀름 팀장
- (관계기관 및 사무국 2) 한태희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 2. 주요 결과 요약

□ (안건1) 전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결과(안)

- 사무국에서 정리한 간담회 결과 중 모호한 부분 수정·보완\* 필요
  - \* 결과보고서의 ‘5. 주요 논의내용 정리’ 페이지의 ‘대안’ 표현 삭제 및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제도의 추진 배경 설명 등 세부내용 추가
-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에 대한 입장정리 필요하며, 분과 운영

소위에서 방향 논의 후 다음 소분과 회의에서 확정키로 함

- 결과 보고서 중 '대안'이라는 표현은 논의 결과로 오해할 수도 있어 다른 표현으로 변경 필요(이무진 위원 등)
- 간담회 때 발제되었던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제도의 구체적 내용, 필요성 등이 결과 보고서에 더 추가되어야 함(최철원 정책보좌관)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현장간담회였는데 본론은 발제에서 멈추고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여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아 아쉬웠음(강선희 정책위원장)
- 농특위 입장에서 전남의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입장정리를 해야 함(이정환 이사장)

□ (안건2) 마늘·양파 유통구조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안)

- 유통구조 개선안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진하며 세부주제, 형태, 토의자 등에 대해 분과 운영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 정부가 수급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수급관리를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상황에서 토론회는 의미가 없음(이무진 위원)
- 마늘, 양파의 생산·소비·유통에서 어떻게 개혁적인 정책을 낼 것인지, 농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틀에서의 가격안정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임(이태문 정책위원장)
- 8월 10일 전국단위 마늘·양파산업연합회가 출범하는데 농식품부에 마늘·양파 유통혁신안을 요구한 상태이기에, 토론회를 통해 살을 더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강선희 정책위원장)
- 농식품부, 농협, 마늘 생산자, 양파 생산자, 학계에서 다 같이 토론문을 발표하는 심포지엄 형태로 하자(정학철 소분과장)

□ (안건 3) 유럽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사례 조사결과 보고

- 시간 부족으로 인해, 유럽 정책사례 보고에 대한 질의는 차기 미국·일본 사례 보고 시 병행하기로 함

### 3. 향후 계획

□ 회의결과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 보고 및 8월 회의 일정 확정

□ 농식품부와 토론회 추진계획 협의

## 1. 전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결과 보고

### □ 주요 의제 정리 내용에 대한 의견

- (대안이 아닌 입장) 주요 의제로 정리한 내용 중 대안으로 처리한 것은 맞지 않음. 당시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위태석 연구관 의견은 대안이 아니라 입장일 뿐이므로 입장으로 처리해야 함(이무진 위원)
  - 대안으로 처리하면 논의 결과로 오해할 수도 있어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음(송기호 위원)
- (찬성, 보류, 반대로 분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보면 찬성, 보류, 반대 3가지였으므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로 표시하는게 더 이해하기 쉬움(최철원 위원)
  - 농민단체, 품목별연합회는 찬성,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반대, 한농연 중앙은 반대였지만 지역은 중립적
  - 이정삼과장이 제출한 의견으로 결론되어지는 건 안됨. 현장의견을 정리하면 됨
- (거래제 보완) 경매제 보완을 중심으로 말한 사람은 2명(이정삼, 위태석)이며 다수는 경매제 보완이 아닌 거래제 보완을 이야기했음(최철원 위원)
- 현장간담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없고 문제 제기된 것은 많았음. 나왔던 문제를 정리해 주고 대안이라 처리한 것은 안이라는 의견으로 정리 필요(정명생 위원)
- (간담회 발제내용 포함 요청) 간담회 때 발제되었던 내용, 필요성 등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들어가면 좋겠음. 전남형은 시장도매인제와 전혀 다른데 기존의 갈등 안에서 논의해 묵살해버리는 것 같아 좋지 않음. 전남 제안을 부각시키면 좋겠음(최철원 위원)
  - 전남형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체계를 이야기해야 그 내용을 실을 수 있음(김한승 사무관)

## □ 현장간담회 평가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에 대한 토론보다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찬반 논리가 중심이 되어 많이 아쉬웠음(최철원 위원)
- (현장간담회와 토론회 구분 필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현장간담회였는데 본론은 발제에서 멈추고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여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아 아쉬웠음(강선희 위원)

## □ 환경변화에 따른 가락시장 변화의 필요성

-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과 기존 거래방식이 맞다는 그룹이 존재하는데 본인은 전자임(하석건 대표)
  - 시장환경, 유통구조가 변하였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에 위임해 자기 여건에 맞게 해야 함. 각자 지역특성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함
- 경매제냐 시장도매인제냐 옥신각신 하지 말고 하자는 것인데 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정가수의때때 보완하자고 이야기함. 농특위에서 도와준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전체를 손봐야 함(하석건 대표)
  - 연구진으로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음(정학철 소분과장)
- 지금의 농안법은 가격안정도 못하고 도매시장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게 문제임. 농안법이 도매시장법과 분리되어야 함(최철원 위원)

## □ 단기과제 검토(대금정산 조직 설립, 경매사 직무 추가)

- 대금정산 조직 설립은 과거에도 추진되다 중단되었음. 중도매인과 시장주체들이 공동으로 대금정산조직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며 시장주체들 스스로 만드는게 의미있음(한태희 사무관)
- 유통조직이 자발적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는게 좋음(한태희 사무관)
  - 농안법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에 개설자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정부지원이 마땅치 않음. 농식품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명시하면 예산지원이 수월할 것임

- 경매사 숫자가 너무 적은게 사실이나 도매법인이 수용하지 않음(한태희 사무관)
  -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 정가수의매매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매사 업무로 명시해 넣으면 좋겠음
- 자칫 경매사 직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의안으로 되다보면 논의의 핵심이 좁혀질 우려가 있어 깊게 토론해야 함(송기호 위원)
  - 한쪽 손을 들어주자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보자는 것임.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임(정학철 소분과장)

## □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논쟁으로 흘러가는 이유

- 이 문제는 전형적인 예산프로세스의 문제.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돈 문제임. 예산우선순위에서 농식품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김현아 위원)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것이라 경매제냐 시장도매인제냐의 논쟁으로 가는 것임. 전남을 허가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속성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이정환 이사장)

## □ 농특위 소분과 입장 정리에 대한 의견

-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장으로 들어가야 함. 경매제 이외 다른 가격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장이라 정리해야 함(이무진 위원)
- 농민들 입장에서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이 맞다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윤금순 위원)
- 농특위 입장에서 전남의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입장정리만 남았는데 농식품부가 안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과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정리하면 됨(이정환 이사장)
- 공정거래위는 정부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음. 농특위가 중립적인 자세로 갈 필요는 없으며 농특위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이무진 위원)
- (김영재 분과위원장 당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논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전남에서 세밀한 논리준비가 필요함. 전남에서 준비중인 국회

토론회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는게 좋겠음.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검토해 보자(김한승 사무관 전달)

- 전남도에서 추진예정인 국회토론회는 10월 정도이며 전남도 단독으로 할지 농특위와 같이 할 것인지 결정이 남았음. 농특위가 쪽 같이 해주길 요청드림(최철원 위원)

## 2.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논의

### □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만들기 전 농식품부가 생산자와 약속했던 4가지 전제조건이 있음. 하지만 지금 정부가 수급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상황에서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지(이무진 위원)
- 정부정책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 의무자조금 단체 자율성, 산지유통 50%, 수입농산물 관리 등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무자조금만 끌고 오는 상황에서 토론회에서 올바른 안이 나올 것인지 의문
- 농식품부 공식입장은 양파, 마늘 생산자협회에 문서로 작성해서 공식적으로 보냈음. 전혀 그렇지 않음(한태희 사무관)

### □ 토론회 발제주제에 대한 의견

- 발제주제 1,2,3이 모두 핵심을 비켜가고 있음(강선희 위원)
- 가락시장이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가격이 정해지기 때문. 가격결정 시스템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나오는 것임. 마늘, 양파생산자협회가 의무자조금에 동의한 것은 수급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농식품부 발제안은 영양가가 없음
- 가격안정 소분과에 맞는 근본적 내용, 최저가격과 가락동 시장가격을 이야기하는게 더 현실적임. 가격을 맞추기 위해 유통구조를 어떻게 바꾸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되어야 함(강선희 위원)
- 발제의견은 농식품부에서 받은 것으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것임(김한승 사무관)

- 농식품부 관료의 고민보다 현장이 더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음. 공익형 직불제 법안의 생산조정 의무는 의무자조금단체 총회에서 결정되면 생산 조정까지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토론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봄. 4가지 주제를 다 하겠다는 것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임(이무진 위원)
- 마늘, 양파 유통구조로 축약한 것은 작은 것을 찾아 들어가면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고민에서일 것임. 마늘, 양파 생산·소비·유통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적인 정책을 낼 것인지, 농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접점이 나올 수 있을 것임(이태문 위원)
- 작은 단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현실에 접목시키기 쉬움. 8월 10일 전국단위 마늘·양파산업연합회가 출범하는데 농식품부에 유통 혁신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살을 더 붙이는 계기점으로 될 수도 있음. 마늘, 양파 유통구조 개선으로 제안함(강선희 위원)

#### □ 발제(농식품부) 및 지정토론에 대한 의견

- 현장간담회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 입장을 듣고 우리의 입장정리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 현재 농식품부 입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농식품부가 발제하는 것은 맞지 않음(윤금순 위원)
- 의무자조금 출범 전 유통혁신안 주기로 했는데 안 나왔음. 유통혁신안에 농협이 빠져있어 농협유통혁신안 이야기 듣고 농특위 방향 잡아가는 형태 필요(강선희 위원)
- 다음 토론회는 전남 현장간담회처럼 하겠다는 것이며 농식품부가 4가지 발제하고 지정토론이 공격하는 식을 염두에 둔 것임. 농식품부는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책이 필요함(김한승 사무관)
- 전남의 요구사항인 가락시장 진출이 빠져있어 의도성이 깔렸다고 의심하는 것임(최철원 위원)
  - 전남형 공영도매시장은 좀 더 논리보완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아 누더기가 될 것임(김한승 사무관)
  - 현장간담회 결론은 생산자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자는 것임. 가락시장에 물건을 내 본 사람이 경매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임(이무진 위원)

## 제안된 토론주제 이외 주제에 대한 의견

- 수급, 가격교섭력, 유통, 수입관리 등을 다루어야 하는지 마늘, 양파 한 측면을 파고들어 고민할 것인지 판단 필요(정학철 소분과장)
- 유럽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자 입장에서 정리,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걸 제안함(이무진 위원)
- 양파, 마늘 유통구조만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가. 굳이 양파, 마늘로 축소해 갈 것인지, 유럽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갈 것인지 정리 필요(윤금순 위원)
- 수입김치 관리, 김치자급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례라도 해 볼 수 있는지. 코로나 이후 핵심적인 내용인 식량자급에 관한 내용과 맞물리면서 수급관리 안 다를 수 없음(정학철 소분과장)

## 토론회 틀, 방식에 대한 의견

- 심포지엄 형태로 각자의 입장에서 유통구조 개선안 내고 자유토론하자(강선희 위원)
- 각자 대표적인 내용발제를 부탁하며 발제에 공격할 내용을 준비하면 됨. 발제 자체를 다 같이 하고 토론문 내는 걸로 하자. 농식품부, 농협, 마늘 생산자, 양파 생산자, 학계에서 준비(정학철 소분과장)
  - 학계 발제토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받겠음(김한승 사무관)

## 3. 유럽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사례 조사결과 발표

-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

## 회의실 대관시간 종료로 질의응답은 추후에 진행

## III. 향후 일정

마늘·양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 : 8/20(목)

정책연구용역팀 해외 사례 발표 : 8/27(목)

- 미국(김한호 서울대 교수), 일본(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발표(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